***Background:***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신인대이완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사용한 다양한 이식건에 따른 임상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함에 있다.

***Methods & Materials:*** 본 연구에서는 2002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83명의 환자(남자 48명, 여자 35명)를 후향적으로 관찰하였다. 전신인대이완이 있는 31명의 환자군 중, 22명에서는 자가슬개골 건을 사용하였고, 11명에서는 4가닥 슬괵건을 사용하였다. 전신인대이완이 없는 52명 중, 33명에서는 자가슬개골 건을 사용하였고, 19명에서 슬괵건을 사용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수술 후 최소 24개월째에 비교하였다.

***Results**:* 전신인대이완이 없는 환자 중에서 자가슬개골 건과 슬괵건을 사용한 군에서 KT-2000으로 측정한 경골의 전방전이의 side-to-side difference는 2.7±1.9mm와 3.5±1.7mm였으며, 평균 Lysholm score는 91±7 point와 85±10 point로 두 결과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492). 슬괵건을 사용한 군에서는 전방전이의 side-to-side difference와 Lysholm score는 반비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ß = -0.604, p<0.001).

전신인대이완이 있는 환자 중에서 자가슬개골 건과 슬괵건을 사용한 군에서 경골 전방전이의 side-to-side difference는 3.4±1.5 mm와 4.5±2.0

mm였으며(p=0.036) 평균 Lysholm score는 각각 89±7 points와 79±12 points 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15). 전방전이의 side-to-side difference와 Lysholm score는 반비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ß = -0.708, p<0.001).

***Conclusions:*** 전신인대이완을 가진 환자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 수술 후 2년째 슬개골 건을 사용한 군의 전방전이와 임상적 결과가 4가닥 슬괵건을 사용한 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Level of Evidence:*** Therapeutic study, Level III